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24편

Jeff Pippenger

2026-01-06

24번

지난 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구약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신약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그리고 신약성경이자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각각 11장부터 22장까지로 대표되는 예언적 증언의 세 개의 평행한 흐름을 짚었다. 창세기의 흐름은 아브람과의 언약을 드러내고, 마태복음의 흐름은 기독교 교회와의 언약을 드러내며, 베드로를 현대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의 상징으로 삼는다. 두 흐름의 가운데 구절들은 하나님의 인을 가리키는데, 아브람에게는 그것이 '할레'였고 베드로에게는 이름의 변화였다. 요한계시록의 그 흐름에서 중심 구절은 17장 12절이다.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들이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왕과 같은 권세를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7:12.

창세기와 마태복음은 신성과 인류의 혼인을 밝히고, 요한계시록은 일요일 법의 때에 짐승과 용의 혼인을 밝힌다. 이 세 가지 모두 일요일 법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한 부류는 짐승의 표를 나타내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인을 나타낸다. 12절에서의 짐승과 용의 모조물은 창세기 11장에서 니므롯의 탑에 대한 오메가적 언급이다. 거기에서 거짓 언약 종교가 심판을 맞았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 곧 큰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 니므롯은 바티칸의 오메가에 대한 알파이며, 이런 이유로 교황권은 큰 바벨론으로서, 니므롯의 바벨이라는 알파에 대한 오메가이다.

이 세 개의 가운데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각 행의 가운데 부분에 담긴 증언이 실제로는 세 구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나와 너와 네 뒤에 오는 네 후손 사이의 것이다. 너희 중 모든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 할례를 행해야 하며,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 대대의 모든 남자아이, 곧 집에서 태어난 자나 네 후손이 아닌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는, 너희 중에서 생후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창세기 17:10-12.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드러낸 이는 혈과 살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6:17-19.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째이며, 일곱에 속한 자로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으로,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는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권세와 힘을

그 짐승에게 준다. 요한계시록 17:11-13.

니므롯의 벽돌과 회반죽이 나타내는 거짓 언약과, 탐과 성이 나타내는 그의 교회와 국가의 거짓 체제에 대한 이야기는, 니므롯 이야기의 오메가에서 나타나는 짐승의 형상의 거짓 체제를 예표한다. 세 줄기와 세 구절의 세 중심점은 모두 생명의 언약과 사망의 언약을 증언한다. 14만 4천은 일곱에 속한 참된 여덟째이며, 교황권은 단지 그 가짜일 뿐이다. 니므롯의 무리는 그들의 혼인에서 마음을 하나로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 14만 4천에 대한 가짜이다.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거짓된 짐승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조품이다. 8절에서 교황권이 대표하는 거짓의 완전한 표현이 드러난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볼 때 놀랄 것이다. 요한계시록 17:8.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시고, 일곱에 속한 여덟째인 교황권은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이다. 용과 짐승의 결합이 가리키는 그 "한 시간"은 일요일 법령부터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아브람으로 대표되는 십만 명이 기치처럼 하늘로 들어 올려지고, 바로 그와 동시에 교황권이 부상한다.

우리는 오순절에 베드로가 자신의 오순절 메시지를 요엘의 성취라고 확인했다는 관점에서 요엘서를 다루어 왔다. 각각 열두 장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언약 라인에서, 각 라인의 가운데 세 절은 동일한 역사를 다루며, 그 역사 속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곧 파니움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파니움은 지금 세상이 막 경험하려는 지점이다. 파니움에서 베드로는 또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있다. 열두 장의 세 라인은 파니움과 오순절에서 수렴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인쳐지고 짐승의 표가 사탄의 신부에게 찍힌다. 요엘서는 열 처녀 비유에서의 깨우는 외침을 지목하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자신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에 깨어나는 때이다.

요엘서는 네 세대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 노인들아.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일이 너희의 시대에 있었느냐, 너희 조상들의 시대에도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자녀는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팻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 1:1-4.

'늙은 자들'은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때에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이며, 그 인침은 성령의 부어 주심 가운데 이루어진다. 에스겔은 '늙은 자들'을 '옛 사람들'로 묘사한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어두운 데서, 각 사람이 자기 우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함이라. 에스겔 8:12.

영감의 기록은 에스겔 9장의 인침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인침과 동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또한 8장의 네 단계로 격화되는 가증한 일들에 나오는 "장로들"이 숫자 25로 대표됨도 분명하다. 하나님의 양 떼를 지키도록 되어 있던 25명의 "장로들"은 태양에게 절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다. 그들이 등 돌린 성소의 맥락에서, 그들은 열두 명으로 된 제사장 반차 두 개와 대제사장을 대표한다. 일요일법령 때 그들은 태양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뜻을 같이하겠다고 서약한다. 그 25명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서의 250명으로 예표되었는데, 향을 바친 250명이 가담한 삼중 연합을 그 셋이 대표한다. 배도의 세 주모자들은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켜 버렸을 때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보통의 죽음을 당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벌을 받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키고, 그들이 산 채로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면, 그때 너희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 아래에 있던 땅이 갈라졌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삼켰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 채로 구덩이로 내려갔고, 땅이 그들을 덮었으며,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졌다.

그들 주변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하노라" 하였음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던 이백오십 명을 소멸하였다. 민수기 16:28-35.

1888년의 반역은 코라, 다한, 아비람과 향을 바친 250명의 반역으로 예표되었다. 그 250명은 미국, 곧 땅의 짐승이 입을 열어 용처럼 말할 때 일요일 법령에 이르게 되는 삼중 연합과 동맹을 맺었다. 그때 늦은 비가 한량없이 부어지며, 이는 향을 바친 250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멸망한 것과 같다. 그 250명은 거짓 종교 체계를 대표하며, 일요일 법령 때 늦은 비가 부어질 동안 멸망한다. 코라와 그의 동조자들을 삼켜버린 땅이 갈라진 사건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지진으로, 미국이 입을 열어 용처럼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250명 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불을 예표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불은 일요일 법령과 일치하므로, 250명에게 내린 불은 늦은 비와 관련된 일요일 법령의 불이다.

민수기에서 고라의 반역을 다루는 본문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한 약속의 땅에 관한 메시지에 맞선 반역과 예언적으로 상응한다. 그 반역은 성경에서 말하는 "노하게 한 날"을 상징한다. 고라의 반역에 관한 본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깨닫는 자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며, 지혜로운 자들은 고라의 반역의 역사가 약속의 땅에 대한 여호수아의 메시지에 대한 반역에 대입되어야 함을 이해해야 한다. 그 반역은 가데스에서 일어났고, 가데스와 고라의 반역은 둘 다 일요일 법령 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반역이다. 고라와 분향한 250명은 에스겔 8장에서 태양에게 절하는 25명을 예표했다. 에스겔 8장의 늙은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네 가지 점증하는 가증한 일들 가운데 네 번째를 대표한다.

첫 번째 가증한 것은 질투의 우상이고, 두 번째는 은밀한 방들이며, 세 번째는 담무스를 위해 우는 것이고, 그 뒤에 스물다섯 사람이 해에게 절한다. 그 다음 9장은 8장에서 묘사된 가증한 일들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힌다. 그렇게 탄식하고 우는 자들은 동방에서 올라오는 천사에게 인침을 받는다. 천사는 전령이며, 메시지를 상징한다.

동방에서 오는 인침의 기별은 동풍의 기별이며, 그것은 이슬람의 기별이다.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으면, 멸하는 천사들이 그들의 일을 시작하는데, 이는 “국가적 배교 뒤에는 국가적 파멸이 따른다”라고 가르치는 예언의 외적 선이 말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이다. 고라로 대표되는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역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간다. 예루살렘에서는 악인들이 제거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자들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동쪽을 향한 여호와와 전 동문으로 데려가셨다. 보니 그 문 어귀에 스물다섯 명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 나는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는데, 그들은 백성의 방백들이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들은 이 성에서 악을 꾀하며 악한 계략을 베푸는 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니니 집을 짓자. 이 성은 가마요 우리는 고기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예언하라, 인자야. 여호와와 영이 내게 임하사 내게 이르시되,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나는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아노라. 너희가 이 성에서 너희가 죽인 자들을 많이 늘렸고, 그 성의 거리들을 죽임당한 자들로 가득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그 가운데 둔 너희 죽임당한 자들이 고기요 이 성은 솔이거니와, 나는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리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였으니,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어 너희를 타국인의 손에 넘기고, 너희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리라. 너희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성이 너희의 솔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도 그 가운데 있는 고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 규례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행하였음이라.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으니라. 이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 11:1-13.

예루살렘은 알곡이 가라지와 분리되는 일요일 법 때에 정결하게 된다. 25로 대표되는 사람들, 또는 고라의 250명은 밖으로, 예루살렘의 "경계"로 끌려 나가 죽는다. 25는 한 주 동안 봉사하던 제사장들의 수이며, 그것이 십배수인 250으로 상징될 때에는 전 세계적인 교회를 나타낸다. 이는 열이 전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전투하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로 이루어진 교회로 정의되고, 승리하는 교회는 알곡만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의미한다.

하나님께는 살아 있는 교회가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교회가 있으나, 그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지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이 있는 교인들이 있고,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렸느니라.... 이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느니라.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이르되,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곡식은 내 곳간에 모아 들이라 하리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우리는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했던 이유를 본다. 그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함께 뿌리째 뽑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견과 판단은 중대한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수가 생겨 알곡 한 포기라도 뿌리째 뽑히는 일이 없도록, 주인은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 내어 멸망에 넘길 것이다. 더 진보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들 안에도, 알곡 사이의 가라지처럼 결함이 있고 잘못하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신다. 그분은 잘못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경고하시지만, 자신이 가르치려는 교훈을 배우는 데 오래 걸리는 이들을 멸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알곡 가운데서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으신다. 가라지와 알곡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어 있다. 알곡이 충분히 성장하여 익게 되면, 그 특성으로 인해 가라지와 온전히 구별될 것이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불완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 때문에 그분의 교회를 멸하지 않으신다. 지식에 합당하지 않은 열심으로 가득 찬 자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 있을 것이며, 그들은 교회를 정결케 하고 알곡 가운데 있는 가라지를 뿌리째 뽑아내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잘못하고 있는 자들과 교회 안의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특별한 빛을 주셨다. 교인들은 성품에 결함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제명하거나 출교하는 일에 있어서 충동적이고 과열되며 성급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르지 않는 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다. 주께서 참으로 회심한 자들을 교회 안으로 들이시는 동안, 사탄은 동시에 회심하지 않은 자들을 그 교제 안으로 끌어들이신다.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는 동안, 사탄은 가라지를 뿌린다.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서로 대립하는 영향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교회의

정결을 위해 작용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시키기 위해 작용한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45, 46.

악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 멸망당한다. 그들은 추수 때에 제거되는데, 그때는 또한 밀이 무르익는 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밀은 오순절에 흔들여 드리는 두 떡, 곧 첫 열매의 요제를 위해 함께 거두어진다. 밀의 첫 열매를 추수하는 일은 성경 예언에서 특별히 다루는 주제이다. 밀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은 바로 이 주제를 말하며, 그리스도의 많은 비유가 이 매우 중요한 예언적 이정표를 지목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이 비유들은 심판 후에는 어떠한 은혜의 기간도 없을 것임을 가르친다. 복음의 사업이 완성되면, 곧바로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의 분리가 뒤따르며, 각 부류의 운명은 영원히 확정된다.” Christ's Object Lessons, 123.

밀 제물은 십사만 사천이며, 셋째 천사가 밀을 가라지에서 가려낸다.

그때 나는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와 함께하던 천사가 말했다. '그의 말은 두렵고, 그의 사명은 엄위롭다. 그는 가라지 가운데서 알곡을 가려내어, 하늘 공간을 위해 그 알곡을 인치거나 묶을 천사이다.' 이러한 일들은 온 마음과 온 주의를 사로잡아야 한다. 나는 또, 우리가 자비의 마지막 기별을 받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날마다 새로운 오류를 받아들이거나 흡수하고 있는 자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나는 젊은이도 노인도 오류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유익이 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을 그치게 하라.' 원고 공개집, 5권, 425쪽.

셋째 천사는 알곡에 인을 치고 또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다. 셋째 천사는 일요일 법령을 상징하는데, 그때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지도부를 대표하는 25명이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 심판을 받는다. 그때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로 변화된다.

이 사업은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이다. 충성됨이 입증된 전투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현재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밟아온 모든 진보의 걸음을 되짚어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볼 때, 나는 놀라움과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과 과거 역사 속에서 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대총회 회보, 1893년 1월 29일.

가라지를 밀에서 가르는 예언적 주제는 성경 예언의 주요 주제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이 사역의 한 예이며, 이 일의 절정은 일요일 법령에서 일어난다. 그때 우리는 심판받을 자들이 죽임을 당하러 예루살렘의 경계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분은 성전을 신성을 모독하는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셨다.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행위들 가운데 하나도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신 일이었다. 이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기 위한 마지막 사업에서도 교회들에게 두 가지 뚜렷한 부르심이 주어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다음과 같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가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였도다' (Revelation 14:8).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가운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 말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Revelation 18:4, 5)." Selected Messages, book 2, 118.

곡식과 가라지의 교회는 가라지가 제거되는 일요일 법령 위기까지 존재한다. 그 제거는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일요일 법령을 상징할 뿐 아니라 늦은비의 기별이 점차 커져 큰 외침이 되는 것도 가리키는 셋째 천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라지는 곡식과 마찬가지로 예언적 증언의 한 요소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요일 법령에 이르며, 셋째 천사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 한다. 그분은 1844년 10월 22일에 그것을 정결케 하셨고, 두 번째 성전 정결은 일요일 법령이다.

일요일 법령으로 이끄는 역사의 외적 요소들은 승리한 교회의 증언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가라지와 알곡, 그리고 두 부류의 결박도 마찬가지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이며, 그것들은 두 부류를 분리하고 결박한다. 그러나 화잇 여사가 그 '마지막 기별들'이 '추수를 익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추수를 익게 하는 마지막 기별은 늦은 비이며, 그것은 250명을 '파멸의 불을 위한 장작 단처럼' 묶는 불이다.

"요한에게는 교회의 경험 가운데 있는 심오하고도 가슴 벅찬 관심의 장면들이 열려졌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위험과 투쟁과 최종적인 구원을 보았다. 그는 땅의 추수를 무르익게 할 마지막 기별들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하늘 창고를 위한 단으로서이거나 멸망의 불을 위한 쉼으로서이다. 지극히 중대한 주제들이 그에게 계시되었고, 특별히 마지막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되었으니, 이는 오류에서 진리로 돌아설 자들이 그들 앞에 놓인 위험과 투쟁에 관하여 교훈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 세상에 닥쳐올 일에 관하여 아무도 어둠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각 시대의 대쟁투』, 341.

그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 뒤에 오실 분으로 소개한 먼지 빗자루를 든 남자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는 밀리의 꿈에서 쓰레기를 쓸어내는 사람이다.

"주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곧 드러내실 것이다; 이는 그의 '손에 키가 있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여, 자기의 알곡은 곡간에 모으시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2년 11월 8일.

화이트 자매는 1849년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을 모으시기 위해 두 번째로 손을 내미셨다고 밝히면서 이사야를 언급하였고, 이사야와 화이트 자매는 144,000명의 최종적인 모임을 지적하고 있다. 모임의 과정에는 '첫 번째 실망'으로 표상된 흠어짐과 모임이 포함되며, 그것은 지체하는 때의 끝에서 이루어질 모임으로 이어진다. 144,000인의 인침과 관련된 이러한 각 요소는 성경 예언의 특정한 주제이다. 죄를 종결하시기 위해 주께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외부의 역사는 다니엘 11장 11절에 표상되어 있고, 최종적인 모임은 이사야 11장 11절에 있으며, 지체하는 때의 끝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그리고 일요일 법령 때 곡식과 가라지의 분리는 에스겔 11장 11절에 제시되어 있다:

이 성읍은 너희의 솔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에스겔 11:11.

요엘서에서 '새 포도주'는 성소의 수호자가 되어야 했던 연로한 장로들에게서 끊어진다.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는 요엘의 새 포도주이며, 일요일 법령 때 내려오는 불은 오순절의 불로 예표되어 왔다. 그 불은 하나의 메시지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향을 드린 250명을 멸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일요일 법령에서 끝나는데, 그때 불이 한량없이 부어져 향을 드린 250명을 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 체계가 파괴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일요일 법령의 때에 신실하다면, 미국 정부의 권력과 위세가 그 교회를 강제로 문 닫게 할 것이다. 신실하지 않다면, 단순히 이름을 '첫째 날 재림교회'나 그와 비슷한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이다. 의롭든 불의하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일요일 법령을 넘어가지 않는다. 예언적 증언은 재림주의가 9/11에 '옛 길'의 메시지를 거절했음을 지적하며, 그 옛 길은 일요일 법령에서 '닫힌 문'으로 인도한다. 그 스물다섯 사람은 에스겔서의 본문에서 "Azur의 아들 Jaazaniah와 Benaiah의 아들 Pelatiah, 백성의 고관들"로 대표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표방하지만, 그것은 단지 표방에 불과하다. 야아사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고, 그는 '딛고 보호하다'를 뜻하는 아술의 아들이다. 화이트 자매는 그 스물다섯 사람이 '아술'이 상징하는 대로 수호자들이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듣는다'고 공언하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부류에 속한다. 블라다는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뜻이고, 그의 아버지 '브나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다. 에스겔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치자 블라다가 죽었다.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도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실행하지도 아니하며 도리어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으리라. 이에 내가 엮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시려나이까? 에스겔 11:11-13.

에스겔의 큰 외침에 펠라티야가 죽었다. 알곡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취로서 2020년 7월 18일 거리에서 죽었다. 그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 저자인 모세와 엘리야이며,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약속은 구약의 마지막 진술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소돔과 애굽의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4년에 부활한다. 그들이 죽어 있는 동안 소돔과 애굽은 기뻐하였다. 에스겔은 "아 주 하나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전히 끝내시겠나이까?"라고 말하며 펠라티야의 죽음을 남은 자의 때에 둔다. 이사야에 따르면 소돔은 남은 자의 때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아, 죄 많은 나라여, 불의의 짐을 진 백성, 행악자의 씨, 부패한 자식들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하게 하였으며, 뒤로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맞으려 하느냐? 너희는 더욱더 반역할 뿐이라.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쇠약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처와 타박과 굼아 터진 종기뿐이니, 단지도 않았고, 붕대로 동여매지도 않았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지도 않았도다. 너희의 나라가 황폐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으며, 너희 땅은 이방인이 너희 눈앞에서 삼켜서, 이방인에게 전복된 것처럼 황폐하였도다. 시온의 딸은 포도원에 있는 원두막 같이, 오이밭의 초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남은 자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았을 것이며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1:2-10.

남은 자의 시기 동안 소돔과 애굽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죽임을 당한다. 애굽은 부패한 국가 통치의 상징이고 소돔은 부패한 교회 정치의 상징이다. 브나야의 아들 펠라티야는 일요일 법령 때 죽는데, 이사야는 그것을 성경의 '도밭의 날'과 연결하며, 그 '도밭의 날'은 1863년이거나 일요일 법령이다. 브나야의 아들 펠라티야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흉내 낸 가짜를 대표한다. 남은 자의 때에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 부활은 2023년 7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2024년부터 알곡과 가라지의 최종 분리가 진행되고 있다.

주일법이 제정될 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도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 법도를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행하였음이라.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펠라티야가 죽었더라. 에스겔 11:11-13.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블라다의 죽음은, 이 문맥에서 '죽음에 넘겨짐'을 의미하며, 이는 다니엘 11장 41절에서 열한 시의 일꾼들이 북방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바로 그 시점과 같다. 블라다는 일요일법령 때 북방 왕의 손에 넘겨진다.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뜻.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성전을 세우셔서 일요일법령 때 승리한 교회로 드러내시려는 바로 그 시점에, 블라다로 대표되는 자들은 죽음에 넘겨진다. 그들은 옛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참여하기보다, 자기들을 위해 도비야의 무덤을 쌓고 있었기 때문이다. 블라다는 이사야가 말한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그 몸, 곧 죄로 완전히 짐지워진 몸을 대표한다. 그 몸은 점진적인 반역이 네 세대에 걸쳐 마무리되는 시점의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로, 이사야는 이를 '더욱더 반역한다'는 말로 고조되는 반역으로 표현한다. 2024년에 시작된 마지막 시험 과정에서, 밀은 삼 일 반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며, 그때 그들은 주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 백성아,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겠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였고 이루어짐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12-14.

일요일 법령 때 스물다섯으로 대표되는 거짓 제사장단은 그때 주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알곡은 2024년에 주께서 하나님을 알고, 가라지는 그 사실을 일요일 법령 때에야 깨닫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이 기간은 죽음과 부활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지만 부활은 없다. 시작에 알곡은, 그분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부활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가라지는 같은 장의 일요일 법령의 지진 때에 알게 된다. 그 두 이정표 사이에서 늦은비의 시험 과정이 두 부류를 추수를 위한 성숙에 이르게 한다.

요엘의 메시지는 포도원의 노래이지만, 그것이 제기하는 첫 번째 쟁점은 사람들이 옛날을 통해 말세를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요엘서의 '늙은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자정에 경종이 울릴 때, 그들은 끊어져—주님의 입에서 토해져 버리는데, 그곳이 바로 땅의 짐승이 말을 하려고 입을 여는 자리이며, 또한 발람의 나귀가 말했던 곳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말했던 곳이기도 하다.

'아주 옛 노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 일이 너희 조상들의 시대에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근거한다. 그 구절은 "이것을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두 증인이 제시되는데, 하나는 사람의 네 세대이고 다른 하나는 곤충의 네 종류다. 그리고 그들은 한밤중의 외침에 깨어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이 제외된 것은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요엘의 새 포도주는 기름이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이 늦은 비의 기별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느냐에 좌우된다. 이사야는 '노인들과 장로들'을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로도 묘사하며, 에브라임은 요한계시록 7장의 인 맞은 자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의 형제인 므낫세가 대신 들어간다. 므낫세보다 더 사악한 왕을 찾기 어렵지만, 그가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을 대신한다.

자신들의 영적 타락을 슬퍼하지도, 다른 이들의 죄를 애통해하지도 않는 부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채 남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손에 살육의 무기를 든 자신의 사자들에게 명하신다: '그의 뒤를 따라 성읍을 두루 다니며 치라. 너희 눈이 아끼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 말라. 노인과 청년,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나 표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가까이하지 말라. 그리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은 그 집 앞에 있던 늙은 자들에게서부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주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가장 먼저 느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시고 백성의 영적 유익의 수호자로 세우셨던 그 장로들이 맡겨진 책무를 저버렸다. 그들은 이전 시대처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을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은 그들의 불신을 더욱 굳게 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는 선도 행하지 않으시고 악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으로 찾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이리하여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외침이, 다시는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여 주지 않을 자들의 입에서 나온다. 짓지 않으려는 병어리 개들인 이들이, 노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의로운 보응을 당하는 자들이다. 남자들과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함께 멸망한다.

신실한 자들이 탄식하며 울부짖게 만든 가증한 일들은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했으나,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가장 극악한 죄들은 드러나지 않았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위대하신 분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은밀히 저지른 모든 죄를 아신다. 이들은 자신의 속임수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주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마치 그분이 땅을 버리신 것처럼 행한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위선을 밝혀내시고, 그들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겨 두었던 죄들을 다른 이들 앞에 드러내실 것이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품위, 세상의 지혜를 지녔어도, 또 거룩한 직분의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런 것들로써 사람이 자기 마음의 속임수에 맡겨질 때 원칙을 희생하지 않도록 지켜 줄 수 없다. 가치 있고 의롭다 여겨지던 자들이 배교의 주도자가 되고, 무관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는 데 본보기가 됨이 드러난다. 그들의 악한 행로를 그분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자비 없이 보응하신다.

“주께서는 큰 빛으로 축복을 받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로부터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기를 마치 못해 하신다. 그들은 한때 그분의 임재와 인도를 입은 신실한 종들이었으나, 그분에게서 떠나 다른 이들을 오류로 이끌었으므로,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 놓이게 되었다.” Testimonies, volume 5, 211, 212.

요엘이 ‘늙은 자들’을 지목할 때, 그는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지도부를 향해 말하고 있지만, 요엘은 또한 이사야가 배운 자들과 대조하여 부르는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다. 요엘은 에스겔 8장에서 해에게 절하는 늙은 자들, 그리고 9장에서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말을 들으라, 너희 늙은 자들아, 이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할 때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평신도들에게도 말하고 있다.

8장에 나오는 스물다섯 남자들은 성소를 등지고 태양에게 절하고 있는데, 그들은 일요일 법령의 시점에 위치한다.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섰던 250명의 반역의 “십일조”이다. 그 스물다섯 남자들은, 영감에 따르면 1888년에 반복된 반역의 상징으로서, 9/11에서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지도부의 반역을 예표하였다. 이사야 6장에서 그 속에 실체가 있는 “십일조”로 지혜로운 자들을 규정하는 바로 그 동일한 기간에, 그들은 반역의 “십일조”를 대표한다.

요엘서는 재림교에 대한 선언으로, 그들이 은혜의 시기의 잔을 죄로 가득 채웠으므로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닫혔고, 그 충만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든 상태로 표현되어 늦은비의 기별이 그들의 입에서 끊겼음을 드러낸다. 이사야는 같은 현실을 29장에서 묘사한다.

너희는 멈추어 놀라워하라. 외치고 또 외쳐라. 그들은 포도주로 인함이 아닌데도 취하였고, 독주로 인함이 아닌데도 비틀거리는데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깊은 잠의 영을 부으시고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라. 곧 선지자들,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그가 가리우셨도다.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 봉해진 책의 말과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되 "나는 읽을 수 없나니, 그것이 봉해졌음이라" 하고,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되 "나는 배우지 못하였노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나에게 대한 그들의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배운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 참으로 놀라운 일과 기이한 일이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는 없어지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은 숨겨지리라. 여호와에게서 그들의 꾀를 깊이 숨기려 하며, 그들의 행위를 어둠 속에서 행하고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지어다. 참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음이 토기장의 진흙처럼 여김을 받으리니: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그는 깨달음이 없었다' 하겠느냐? 이사야 29:9-16.

지혜로운 자들의 '명철'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봉인이 풀림에 근거한다. 재림주의의 부패한 기관들에서 훈련받은 자들은 예언의 책을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명철이 없다고 비난한다. 예언의 봉인이 풀려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오히려 명철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여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 재림주의의 학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그 예언을 깨닫지 못하며, 요엘서는 '장로들'에게 들으라고 명하지만, 그들은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부류이다.

그들의 반역의 핵심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이 일이 너희 날에 있었느냐, 혹 너희 조상들의 날에도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장의 맥락이다.

너희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한밤중의 외침에 깨어났다가 자신들이 미련한 처녀들임을 알게 된 때가 있었느냐? "늦은 자들"에게는 "깨어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1844년 엑서터 캠프미팅에서의 밀러파처럼 말이다. 열 처녀의 비유는 재림교인들의 경험에 관한 비유로서, 밀러파의 역사에서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말세에도 다시 글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자기 교회의 기초가 되는 역사가 말세에 반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예언의 기별을 여는 열쇠인 예언적 원리를 강조한다. 그것은 성경적 규칙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때가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계시의 핵심이기도 하다.

요엘은 묻는다. "이 일이 너희 시대에 있었느냐, 아니면 너희 조상들의 시대에라도 있었느냐?" 혹은 이렇게도 물을 수 있다. "너희 조상들의 시대에, 새 언약의 백성과 옛 언약의 백성을 가르치는 시험의 과정이 있었느냐?" 있었다. 그리고 그 분리는 비유에서 기름으로 상징된 예언의 기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일이 너희 시대에 있었느냐, 너희 조상들의 시대에 있었느냐"라는 말은, 그들의 조상들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 점차 심해지는 파괴의 네 세대를 지난 후의 각성이었음을 즉시 드러낸다. 이는 그 기별을 네 세대에 걸쳐 전하라는 명령과 점증하는 파괴를 나타내는 네 종류의 곤충으로 상징되었다. 요엘서는 한밤중 외침 때 영적으로 퇴보하고 배도한 교회에 대한 심판의 선포이다. 거룩한 역사 속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보다 더 큰 빛을 거스른 교회는 없었다. 그러한 유형의 진리에 대한 반역은 "가버나움"으로 상징된다.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는 오가시던 여정들 사이사이에 머무르셨고, 그래서 그곳은 '자기 동네'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다의 기슭에 있었고, 실제로 그 평야 위에 있지는 않더라도 아름다운 게네사렛 평야의 경계 가까이에 있었다. 시대의 갈망, 252.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서 얼마나 인내가 적게 드러났고, 얼마나 많은 쓰디쓴 말이 오갔으며, 우리 신앙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규탄이 쏟아졌는가.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데, 많은 이들이 다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큰 죄인으로 여겨 왔다. 다른 교회 교인들을 이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들이 정죄하는 이들은 빛을 거의 받지 못했고, 기회와 특권도 거의 없었을지 모른다. 만일 그들이 우리 교회들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받아 온 그 빛을 받았더라면, 훨씬 더 크게 진보했을 것이며, 세상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더 잘 드러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빛을 자랑하면서도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너, 가버나움[큰 빛을 받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아, 네가 [특권에 있어서]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나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해진 능한 일들이 소돔에서 행해졌더라면, 그 성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대하여,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행하리라. 또 내가 에브라임의 온 자손, 곧 너희의 모든 형제를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기관들을 세우셨고, 그 기관들은 세상의 기관들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 그 기관들은 멸망해

가는 영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 아래, 오직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증언이 임했으나, 많은 이들이 책망과 경고와 권면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이것을 들으라, 오 어리석고 깨달음이 없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로 모래를 두어 영원한 규례로 삼아 그것이 넘지 못하게 하였나니, 그 물결이 비록 스스로 솟구칠지라도 능히 이기지 못하며, 비록 떠들어도 능히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배반하고 떠나갔도다.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자, 그는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우리에게 추수의 정한 주간들을 지켜 주신다, 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의 불의가 이 모든 것을 돌려보냈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서 좋은 것을 막아 버렸느니라. . . . 그들은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판결하지 아니하면서도 형통하며, 궁핍한 자의 권리를 재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 같은 나라에 내 영혼이 보응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며, 내게 중보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소나기가 거두어지고 늦은 비도 없었느니라. ... 이제부터라도 너는 내게 "나의 아버지여, 주께서는 나의 젊은 때의 인도자이시니이다" 하고 부르짖지 않겠느냐?' Review and Herald, 1893년 8월 1일.